

2025. 7. 9

해외동향부 (제 7192)

- 주요 뉴스: 미국 8/1일 이후 관세 유예 불가. 구라에 50% 관세 부과약품은 200% 검토
 - 미국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 고용 전망 인식도 개선
 - 독일 5월 수출, 예상치 하회. 관세 갈등에 따른 對美 수출 감소 등이 반영
 - 일본, 미국과의 안이한 무역협약은 반대. 관세 부과 시 GDP 감소 불가피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發 관세 불안 지속, 국채 입찰 결과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보합[+0.04%],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 불가 발언, 은행주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반등세 지속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부진한 3년물 국채 입찰 수요 등으로 2bp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4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367.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0.1원, 0.2% 상승). 한국 CDS 하락

		7/8일	7/7일	전일대비			7/8일	7/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25.5	6,230.0	-0.07%	국채 금리 10y	미국	4.40%	4.38%	+2bp
	유럽	545.71	543.50	+0.41%		독일	2.69%	2.64%	+4bp
	중국	3,497.5	3,473.1	+0.70%		영국	4.63%	4.59%	+5bp
	일본	39,689	39,588	+0.26%	CDS 5y	한국	25bp	26bp	-1bp
	한국	3,115.0	3,059.5	+1.81%		중국	47bp	48bp	-1bp
환율	달러지수	97.52	97.48	+0.04%	위험 지표	EMBI+	-	348	-
	유로화	1.1725	1.1709	+0.14%		VIX	16.81	17.79	-5.51%
	엔화	146.58	146.05	-0.36%		WTI유	68.33	67.93	+0.59%
	위안화	7.1785	7.1762	-0.03%	원자재	구리	564.5	498.5	+13.25%
	원화	1,367.9	1,367.8	-0.01%		금	3,301.9	3,336.5	-1.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1일 이후 관세 유예 불가. 구리에 50% 관세 부과 의약품은 200% 검토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8/1일 예고한 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해당 시기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게시. 이는 당초 부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며, 시장에서는 상대가 예측할 수 없도록 불확실성을 키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평가
- 또한 구리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 다만 구리 관세의 구체적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고, 의약품의 경우 1년~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고 부연. 아울러 반도체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미언급
- 이에 더해 브릭스(BRICS)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EU에 대해서는 2일 정도 후에 관세 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첨언. 다만 EU는 그 동안 무역협상에서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 한편, 러트닉 상무장관은 8월부터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구리 선물가격은 장중 10% 내외의 급등을 기록. 일부에서는 관세가 재차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추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 다만 관련 영향이 4월과 같은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eToro)
-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당국이 다양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연발 실효 관세율이 15%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는 경제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경기침체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UB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 고용 전망 인식도 개선

- 뉴욕 연은에 따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연율)은 3.0%로 전월(3.2%) 대비 하락. 품목별로는 대학 등록금, 의료비 등은 상승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식품 가격은 전월과 같은 수준. 한편, 1년 후 실업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떨어져(14.8%→14.0%) 이전에 비해 고용 전망 인식이 향상

- **Goldman Sachs, S&P500지수 목표 상향. BofA는 연내 금리인하 어렵다고 예상**
 - S&P500지수의 연말 목표 지수를 상향(6100→6600)하고, 3개월 및 12개월 목표는 각각 6400, 6900으로 제시. 당초 예상보다 연준의 금리인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채 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주가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분석. 그러나 BofA는 가을부터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본격화 등으로 금리인하 어렵다고 평가
- **독일 5월 수출, 예상치 하회. 관세 갈등에 따른 對美 수출 감소 등이 반영**
 - 5월 수출은 예상치(-0.2%)를 하회하면서 전월비 1.4% 감소. 특히 對美 수출이 부진했는데, 이는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높아 미국의 관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다만 시장에서는 수출이 다소 부진해도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방침 등으로 양호한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중국 국영 매체, 미국 트럼프에 관세 보복 나서지 않도록 경고**
 -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경고. 또한 미국과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위협. 관세를 통해 중국에 희생을 강요하는 모든 조치를 강력 반대하며, 현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만이 무역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 **일본, 미국과의 안이한 무역합의는 반대. 관세 부과 시 GDP 감소 불가피**
 -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안이한 타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 국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닛케이 등에 따르면,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GDP 성장률은 0.4% 감소
- **호주 중앙은행, 금리 동결. 인플레이션 둔화 제시하는 추가 데이터 필요**
 -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3.85%로 동결했는데, 이는 금리인하 전망이 많았던 시장 기대와 상반된 결과. 9명의 위원들 가운데 6명이 동결을 선택했고, 이들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뒷받침하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 다만, 국제 정세가 경제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9일 현지시각 기준)**
 - 6월 FOMC 의사록, 미국 5월 도매재고, 중국 6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시장, AI 역풍-금융 파편화 등 위험 본질 변화에 투자자 대응 요구 - 블룸버그 (What If This Time Really Is Different for Investors?)

- 미국 금융시장에서 다음과 같이 위험의 본질이 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 첫째, 정부부채 증가와 관세·이민 정책의 부정적 전망에도 미국이 혁신의 중심이라는 점과 AI의 영향 주목할 필요. 이는 생산성 및 기업 수익 증가 기대를 높이지만, 동시에 기업 성패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변동성 확대 초래
- 둘째,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미국과 글로벌 증시의 상관관계 감소로 금융 파편화(financial fragmentation)가 심화. 이에 투자 다각화가 유리. 셋째, 부채와 인플레이션 증가 우려로 금리 변동성 심화될 가능성. 관련 여파로 주식과 채권 가격 간 역의 상관관계가 악화되어 채권 투자 시 정교한 전략이 필수적

■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관세 정책을 불신하지만 태도 변화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markets just don't believe Trump on tariffs)

- 트럼프는 4월 관세 유예 발표 당시 90일 내에 90건의 거래 성사를 확신.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美中 무역협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트럼프 관세 정책은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방증
- 이에, 일본과 한국에서는 8월부터 25% 관세 부과된다는 발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이 트럼프 관세 위협을 무시. 하지만, 시장의 무관심과 경제 회복력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어 무역협상 관련 단호한 모습을 나타내면 상당한 충격을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미국 트럼프의 무역협정, 제3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 - The Economist (How Trump's trade deals take aim at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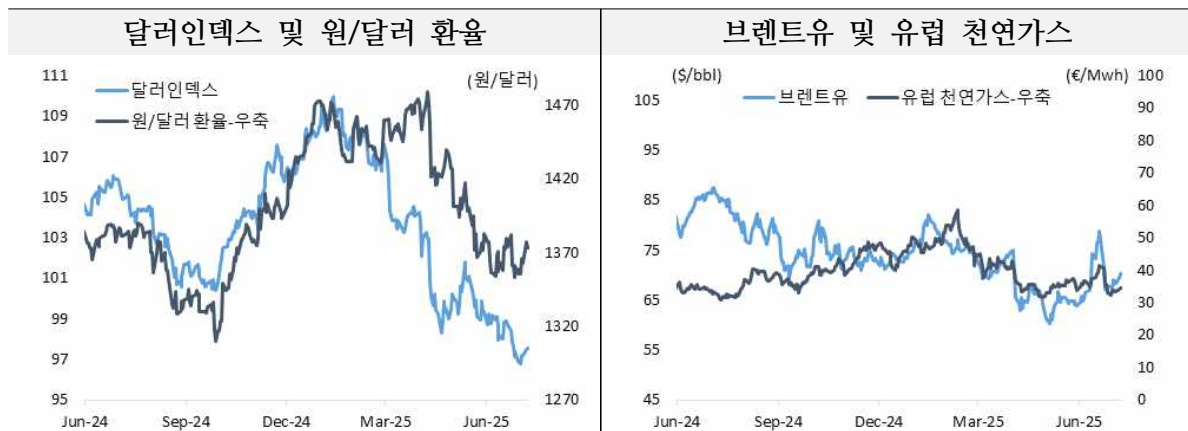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환적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목적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 이는 미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선다는 의미이며, 여타국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
- 중국은 계속해서 對美 우회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 조치 검토. 한편, 중국산 중간 제품의 사용 비중이 높은 베트남 등은 중국산 제품의 환적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상당한 타격 예상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전쟁 무기로 작동 - Financial Times**
(China's weaponisation of rare earths is a new kind of trade war)
 - 금년 봄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미국의 對中 관세 인상 철회로 연결.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보복 조치들과 달리 빠르게 피해를 유발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입증한 전략적 제재로 평가
 - 이번 제재가 보다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중국이 법적·정치적 수단을 구축하고, 상대국의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했기 때문. 또한 해당 충격이 여타국에도 확산되도록 설계하여 중국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관세 철회 압박이 유도되도록 계산.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실질적인 경제 제재 수단으로 진화
- **미국 주식투자자, 방만 재정·관세·연준 독립성 훼손 등의 삼중고 인식할 필요 - 블룸버그**
(What Me Worry? Markets Face a Rendezvous With Reality)
- **미국의 관세 유예 결정, 명확성 결여된 트럼프식 협상의 한계를 노출 - 블룸버그**
(Latest tariff pause shows limits of Trump's frenzied dealmaking)
- **미국 트럼프 독트린, 전략 부족·국력 약화 위험 등으로 근본적 위험 내재 - 블룸버그**
(Trump Is Opening a New Chapter in US Foreign Policy)
- **미국 부채 급증에 따른 경기침체 위험, 적자 감축 등의 해법이 요구 - WSJ**
(Make America Solvent Again)
- **EU의 對美 무역협정, 상이한 국가별 이해관계 등으로 통합의 시험대가 될 소지 - WSJ**
(EU Closes In on U.S. Trade Deal, Testing Bloc's 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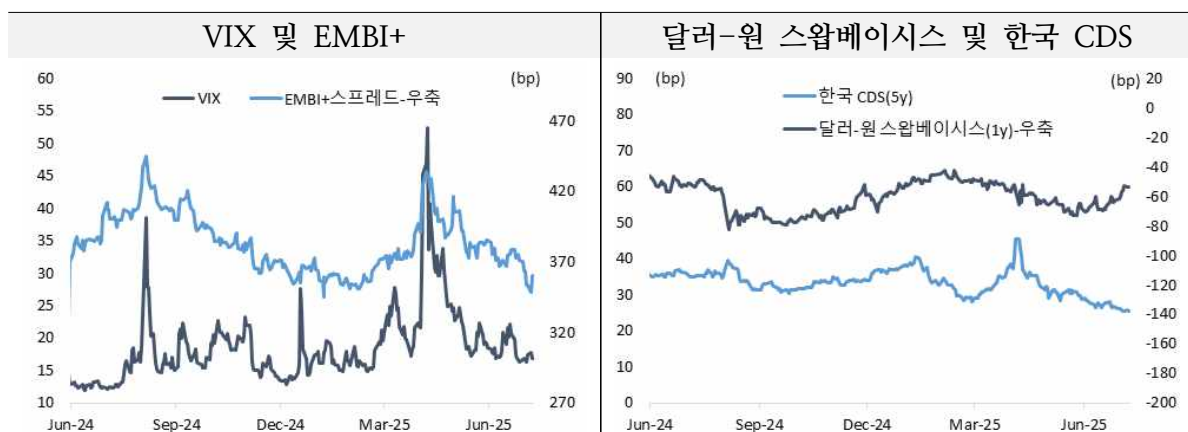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